

진흥회 활동

제26회 한국전자전람회 성황리에 폐막



제26회 한국전자전람회가 「더욱 편리하고, 더욱 풍요롭게」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난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동안 성황리에 개최되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해에 이어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에

참석, 구자학 회장으로 부터 국내 전자·정보산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전시장을 둘러보며 각종 전자제품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LG전자 전시장에 들러 실연 중인 사이버 스페이스 코너를 살펴보고 개인휴대 단말기(PDA) 코너에서는 도우미 안내로 직접 통화를 시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일본·유럽·동남아 등 총 18개 국의 전자관련업체들이 참가, 열띤 경연을 벌인 이번 전시회는 전시에만 그치지 않고 관람객과 함께 호흡하는 전시회란 새로운 전시문화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는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관람객수도 27만명에 육박하는 「전자전」사상 최대인파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전자전의 특징은 VCR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 DVD(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와 플레이어, PDP-TV 그리고 와이드TV 등 차세대를 이끌어갈 다양한 영상미디어의 출현이 뚜렷했고 초대형 TFT-LCD, 휴대폰, PDP(개인휴대 단말기), 각종 기능이 부가된 노트북PC 등이 주류를 이뤄 첨단기술 경연장임을 실감케 했다.

또 정보화사회를 지향하는 화상정보통신시스템이 다수 출품돼 눈길을 끌었고 디지털 위성방송 시스템과 교통지리정보시스템 등이 선보여 2000년대 고부가산업을 쉽게 엿볼 수 있게 했다.

이번 전시회의 성격이 말해주듯 신생활 가전제품의 잇단 출품도 예년과 다른 모습이었다. 전화 예약녹화 VCR와 자연음 오디오, 복합기능 세탁기, 주문형 냉장고 등의 시연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우리생활 패턴을 그대로 반영한 제품들

로 꼽혔다.

산업의 뿌리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국산 제품의 출품도 돋보였다. 자동차 도난경보시스템, 카 CD오토체인저 데크메커니즘, 광센서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은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올 전시회의 특징은 무엇보다 해외바이어들의 발길이 예년과 달리 부쩍 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전시회 주관단체인 본회는 올해 약7천여명의 바이어가 내왕했고 수출상담 실적은 약16억 5,000달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해 수출상담 실적 12억 5,000러보다 30%가 증가한 것으로 「한국전자전」이 국제전시회로서 뿐 아니라 「교역전시회」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제91차 이사회 개최

본회는 지난 10월 12일 무역구락부에서 제9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보통신부 정홍식 실장을 초청 정보통신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26회 한국전자전 등 최근 본회 주요업무 등을 보고했다.



CRT 기술세미나 개최

본회의 형명등록센터에서는 지난 10월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LG전자 방운호 부장 등 50명이 참석 WTDS와 IEC TC/39 관련 정보를 교류키 위해 CRT관련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히라이 로이지 일본 형명등록관리 위원회 부원장을 초청 CRT의 세계공통 형명시스템, WTDS형명에 대한 규정, CRT의 안전성에 대한 고찰 등의 최근 정보에 대해 소개됐다.



정보화 촉진 기본법 시행령(안) 검토 의견 건의

본회는 지난 10월 11일 정보통신산업 진흥 및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키 위해 정보화 촉진 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상산업부에 건의했다.

이는 산업계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정보화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고, 지리정보화분과 위원회 등

의 신설, 정보화 지원센터 위탁업무에 산업계 참여, 산업에 지원예산 근거 규정 신설, 정보화 촉진기금 심의 위원회 운영 효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건의했다.

병원관계자 초청 전자의료기기 공장 견학

본회의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는 지난 10월 6일, 10일, 13일, 17일 4일간 병원의료기기 구매담당자를 초청 전자의료기기 공장 견학을 다녀왔다. 을지병원 김선만 구매부장 등 25명이 참석 동아 X-선 기계, 두산상사, 중외메디칼, 한신메디칼, 로얄메디칼, 메디슨 등 의료기기 전문업체의 공장 현장을 직접 방문 국내 의료기기의 신뢰성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공장견학 참가자들은 의료기기 제조과정 등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이해하게 됐으며 우리 국산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90년 이후 국내 업체들이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 속으로 수출되고 있으므로 국산의료기기에 대해 병원측에서 적극 사용되어 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된다.

병원관계자들은 공장견학을 통해 국산장비의 질적수준이 크게 향상됐음을 직접 체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국산장비에 대해 과거 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산재병원의 장비과 김홍선씨는 이런 좋은 장비의 홍보를 업체 측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많은 의사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수출도 좋지만 업계가 국내에서 인정을 받은 연후에 수

출해도 늦지않다면 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산장비의 제조공정을 돌아본 참관자들은 국내전자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하려면 국산장비를 애용하는 병원관계자들이 늘어나 업체들이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주어야 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직접 견학을 해서 외국의료기기를 선호하는 인식에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가격이 저렴하면서 장비성능이 우수한 반면에 뒤떨어진 디자인과 잔고장을 지적하는 병원관계자들에 대해 대다수업체는 디자인 개발을 위해 산학협동체계를 구성하고 주변 하청업체들의 부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전제품 부품공용화 실무회의

본회 가전산업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본회의회의실에서 가전3사 부품공용화 추진 담당임원이 참석, 회의를 개최하고 수입 및 공급부족 부품을 우선 공용화를 추진하고 DVD 등 신제품에 대한 동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진흥회 8월 주요 행사 및 회의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담당부서
10. 6	CATV증폭기 공동개발 관련 잔여기금 회의	산업전자과
10. 6	의료기기산업협의회, 병원관계자 초청 공장견학	산 업 전 자
10.10~16	제26회 한국전자전람회 개최	전 시 과
10.17	CPT대책회의	통 상 과
10.17	자본재산업 육성 관련 민간 부문 실무작업반 회의	부 품 과
10.18	자기미디어산업협의회	부 품 과
10.19	HA표준화분과 위원회 회의	가 전 과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담당부서
10.24	CTV A/C공동대책 및 대표단 파견회의 개최	통 상 과
10.26	주한 튀니지대사 본회 방문	국제협력과
10.26	폐기물 예치금·부담금 요율 인상에 대한 정책회의	환 경 과
10.27	가전제품 부품공용화 실무총괄반 회의	가 전 과
10.27	95.제2차 공업발전기금 지원 운용 심의회 개최	개발지원과

신규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주)코스모스 약기



대 표 이 사 : 민 병 술
 주 소 : 서울 종로구 낙원동 284-6
 전 화 번 호 : 02)742-8844
 F A X : 02)743-8855
 설 립 일 자 : 1990. 1. 1
 자 본 금 : 12억원
 종 업 원 수 : 85 명
 주 생 산 품 목 : 앰프, 믹서 이퀄라이저, 신디사이저, 디지털 피아노

(주)원 텔



대 표 이 사 : 김 인 배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45 APT형 공장 다-403
 전 화 번 호 : 0342)706-3704
 F A X : 0342)706-3853
 설 립 일 자 : 1993.9. 1
 자 본 금 : 2억원
 종 업 원 수 : 83 명
 주 생 산 품 목 : 900MHz무선전화기